"온 가족 함께 완도로 오세요"

'장보고 수산물 축제' 5월 8일까지
해변공원·명사십리 일원서 열려
가수 영탁·배우 김수미 등 초대

가수 영탁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완도에서 온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가 펼쳐진다.

완도군은 오는 5월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2022 완도 장보고수산물축제'를 완도 해변공원과 장보고 동상, 신지 명사십리 일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안심하고 떠나는 치유 여행'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주민과 관광객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심신을 치유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특히 군은 장보고 대사, 청정바다에서 생산되는 수산물, 해양치유 등과 연계해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신설했다.

5월 5일 축제 첫날에는 도쿄 올림픽 양궁 3관왕 안산 선수가 소속된 광주여대 양궁팀의 사인회, 영 스트리트 댄스 배틀, '희망의 바다' 개막 행사, 버스킹 공연 등이 진행된다.

이어 7일에는 군민 화합 노래자랑이 예정돼 있으며 완도군 전복 홍보대사인 가수 영탁이 특별 초대가수로 등장할 예정이다.

축제 마지막 날인 8일에는 유명 래퍼 비와이가 소속된 해양경찰관현악단의 공연이 축제의 대미를 장식한다.

이와 함께 행사가 열리는 해변공원 앞바다에서는 전통 대나무 낚시 체험을 할 수 있으며 전복 수확과 전통 재래 김 뜨기 체험, 배우 김수미와 함께하는 쇼핑 라이브 커머스, 워터 서커스 플라이 보드 등의 공연도 선보인다.

이 밖에 에어 바운스 어린이 놀이동산, 동물 체험 농장, 어린이 모래 놀이터, 조개 체험 공방 등도 마련돼 청정바다와 함께하는 힐링의 시간을 즐길 수 있다.

아울러 축제와 함께 2022 완도국제해조류심포지엄과 온오프 하이브리드 수출 상담회 등도 열린다.

완도군 관계자는 "많은 분들이 대한민국 청정바다 수도 완도에서 싱싱한 수산물을 맛보고 축제를 즐기며 힐링하길 바란다"면서 "코로나19로 침체되었던 관광과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되는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kwangju.co.kr

목포시, 원도심에 모자아트갤러리 9월 개관

갑자옥 모자점 갤러리로 재단장

목포시가 원도심의 대표 근대문화자산인 갑자옥 모자점을 활용해 모자 관련 전시·판매 및 체험 문화공간인 '목포모자아트갤러리'를 오는 9월 개관할 예정이다.

갑자옥 모자점은 1897년 개항 이후 근대도시로 성장한 목포에서 상업시설들이 밀집돼 가장 번화한 본정통 한가운데에서 1927년 개업한 유일한 조선인 가게였다.

최근까지 100여 년을 이어와 목포 원도심을 상징하는 노포(老鋪)로서 의미가 있는 건축자산이다.

갑자옥 모자점은 일제강점기 당시 2층 목조 건물이었으나 1965년 화재로 탄 이후 현재의 3층 콘크리트 건물로 재건축되면서 트레이드 마크인 '甲' 전각이 새겨졌다.

시는 갑자옥 모자점의 역사·문화·경제적 상징성 등을 고려해 2020년부터 1년여간 전시·패션·건축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활용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를 바탕으로 갑자옥 모자점과 인접한 건물 등 2개 건축물을 활용해 '모자'를 전시콘텐츠의 기반으로 하는 '목포모자아트갤러리'를 조성할 예정이다.

모자아트갤러리 1관인 갑자옥모자점은 주제관으로 모자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담은 스토리텔링, 미디어 아트 등 전시·체험공간으로 꾸민다고 시는 설명했다.

2관은 모자 각인, 모자 제작 등 체험행사 운영공간과 개방형 수장고 등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오랜 기간 원도심 상권을 상징하는 갑자옥 모자점을 모자아트갤러리로 재단장해 근대에서 현재까지 이어지는 목포의 성장 과정과 희로애락이 담긴 공간의 역사 문화적 의미를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목포=문병선 기자·서부취재본부장 moon@

갤러리로 새단장하는 갑자옥 모자점.

해남군, 김 황백화 피해 4억원 지원

2393ha에 527어가 피해
다시마 139어가 1억6000만원

해남군이 김 황백화와 다시마 녹음 피해를 본 관내 해조류 양식 어민 복구지원에 나섰다.

황백화 현상은 김 엽체가 검붉은색에서 황백색으로 변하는 현상으로 수온이 정체되고 영양염이 부족할 때 생긴다.

해남군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의 어업재해 대책심의위원회 결과, 이상조류로 어업재해 피해를 입은 해남군 해조류 양식 653어가에 대해 4억 711만5000원의 피해복구비 지급이 확정됐다

또 피해어가가 사용 중인 영어자금은 피해율에 따라 최장 2년까지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해남군 지역 해조류 양식어장 피해규모는 김 황백화 피해 527어가에서 2393ha 면적, 4만 7871책에 복구액은 4억 7871만원이다.

다시마 녹음 피해는 139어가(김양식 13어가 중복)에서 210ha, 8420줄로 복구액은 1억6840만원으로 집계됐다.

해남군은 어업재해와 별개로 군 예비비 30억을 자체 편성해 수협과 함께 황백화 피해 물김 폐기처리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황백화 피해 물김 폐기처리 어선임차료 2억원도 지원할 예정이다.

황백화 피해 발생후 해남군에서는 어업재해 피해복구계획 수립을 통해 전남도와 해수부에 어업재해를 건의했으며, 지난 22일 해수부에서 이상조류로 어업재해로 인정되면서 피해복구비 금액 지급이 확정됐다.

해남군 관계자는 "황백화 피해와 관련된 지원으로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면서 "최대한 빨리 재해복구비가 어민들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염전사업장 전담 공무원 지정

신안군, 1대 1 '특별 관리'

신안군이 염전 사업장에 대한 불법행위 방지를 위해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특별 관리한다.

신안지역에는 총 756곳의 염전이 위치한 가운데 근로자가 고용된 염전 사업장은 83곳이다.

군은 고용 사업장에 전담 공무원을 1대1로 지정, 사업장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월 1회 이상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전담 공무원제를 통해 임금체불, 폭언·폭행, 감금, 장애여부, 근로계약서 작성·구비 등 소금산업진흥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등을 수시로 집중 점검한다.

위반사항 적발시 소금제조업 허가 취소, 보조사업 지원 제한, 노동청 및 수사기관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근로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섬인권센터TF 설립을 추진, 근로자 안심 숙소지원 건의 등 염전의 근무여건 개선에도 다각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진도군, 지역농수특산물 식품가공개발 박차

'2022 맘마味아 프로젝트' 진행

진도군이 지역 농수특산물을 활용, 식품가공 개발 성장 기반 조성을 위해 '2022 맘마味아 프로젝트'를 활발하게 실시하고 있다.

군은 1년동안 단계별 교육 과정을 진행, 농식품 가공과 특산품 개발, 창업 관련 기술 전수 등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상반기 주요 교육과정은 ▲쿠킹클래스 기초반 ▲브런치 클래스반 ▲밀키트 창업반 등이다. 군은 개인이 창업을 할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일반 조리자격증반을 넘어 호텔·레스토랑 메뉴 등 높은 수준의 교육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

하반기에는 디저트 중심의 ▲홈카페 레시피반 ▲베이커리 기초반 ▲창업반인 플레이팅 디저트 수업반 등의 수업이 마련된다.

한편 군은 '브런치 클래스반'은 수강생을 5월 3일까지 모집한다. 모집 문의는 진도군 농업기술센터 농촌자원팀(061-540-6122)으로 하면 된다.

/진도=박현영 기자 hypark@kwangju.co.kr

영광군, 코로나 피해 주민세 100% 감면

영광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 올해 8월 정기분으로 부과 예정인 개인분·개인 사업소분 주민세를 100% 감면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군은 제264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의결을 거쳐 이번 사안을 결정했으며 7월 1일 기준 영광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개인분 주민세 1만1000원과 관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사업소분 주민세 5만5000원을 직권 감면한다.

총 감면액은 개인분 주민세 2억4000만원과 개인 사업소분 주민세 1억1000만원 등 약 3억5000만원이며 주민세 감면 대상자들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괄적으로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단, 사업장 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면적에 대한 세액을 8월 중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민세 감면 혜택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재무과 세정팀(061-350-4784)으로 문의하면 된다.

/영광=이종윤 기자 jylee@kwangju.co.kr

장성 토지(매매 분양)	상무지구(상가매매)	경매교육 [특수전문반 기초반,중급반]
광주에서 20분(6M도로접), 장성댐 (호) 2분, 장성 IC. 5분 총 1760평 (150평, 200평, 500평, 분할가능) [전원주택,물류창고,주말농장,별장,투자적합]	중심상업지역(메가박스앞) 시세 -> 9억 급매가 -> 6억 (총분양 140평) (보 3천, 월 350만, 융 3억5천) (사무실 리모델링함,빠,유흥,모든업종가능, 즉시입주 시비없음)	1) 특수반모집 -> 유치권, 법지, 지분, NPL(전문) 2) 전문반모집 -> 직업으로 하실분 (경매배우면서 수익가능) 3) 기초반, 중급반, 특수반 => 평생 회원반

광주	광산구 삼거동(임야)▶감정가 3억9천 -> 최저가 1억4천 (5/4)
	동구 지산동(농지)▶ 감정가 4억1천 -> 최저가 4억1천 (5/4)
	북구 생용동(근린주택)▶ 감정가 3억 -> 최저가 1억 7천 (5/12)
	북구 용봉동(근린상가)▶ 감정가 32억 -> 최저가 22억 (5/12)
	서구 화정동(주택)▶감정가 3억7천 -> 최저가 2억7천 (5/18)
	북구 용봉동(주택)▶감정가 2억5천 -> 최저가 1억1천 (5/26)
	동구 운림동(근린주택)▶감정가 6억4천 -> 최저가4억5천 (5/26)
전남	담양군 대덕면(임야)▶ 감정가 5억2천 -> 최저가 3억7천(5/11)
	담양군 창평면(주택)▶ 감정가 2억5천 -> 최저가 1억7천 (5/18)
	보성군 벌교읍(근린시설)▶ 감정가 130억 -> 최저가 31억 (5/23)
	목포시 상동(근린상가)▶ 감정가 6억8천 -> 최저가 4억8천 (5/23)
시외	충남 서천군(근린주택)▶감정가 9억2천 -> 최저가 2억2천 (5/3)
	전북 군산시(근린상가)▶감정가 25억 -> 최저가 4억2천(5/23)

010-6670-9800